

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

함께하는 민생의회  **행동하는 정책의회**

제공일자	2022. 9. 30. (금)	
입법담당관	장찬호	803-5110
입법정책팀장	임창효	803-5111
담 당 자	손호성	803-5047

황순자 의원,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

- 돌봄서비스 양적 확대와 돌봄의 질적 내실화 등 필요성 제기

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(문화복지위원회, 달서구3)은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를 지적하고 돌봄 확대 및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.

- 황순자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“저출산 현상 심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”며, 방과 후 돌봄확대 및 돌봄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
- 황 의원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에서,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양적·질적 부분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.
- 이러한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△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초등 돌봄교실,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추가 지원 △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△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.

- 황순자 의원은 “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물론,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”고 말하며,
- “앞으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,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 기대를 표했다.
- 한편, 황 의원은 지난해 공동 참여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에서 「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」을 발표하는 등, 평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.